

## Abstract

A Lesson from the Book of James to Churches in Covid-19 Pandemic: Receive with Meekness the Implanted Word(James 1:21)

Prof. Dr. KiCheol Joo  
(Faculty of Theology)

Now the world is facing many challenges in all areas of society, economy, and culture due to Covid-19. The church is also in turmoil, facing situations that have never been dealt with before. Above all,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vaccinations, it is not yet known when the Covid-19 pandemic will end. For this reason, many saints can completely leave the words of truth or live a religious life without the essence of faith. In other words, people may be living with a spiritual illness without knowing whether they are sick or not. Such situation seems similar to the one faced by the recipients of the book of James, who had to live in diaspora and undergo various trials. This article tries to reconstruct the situation faced by the recipients of the book of James to recognize what the fundamental problems are and what solutions the author presents to the recipient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fact that saints born with words should not wander away from the word of truth during trials, and if such thing happens, they should humbly believe and practice the words implanted when they were born.

Key words: Covid-19, Born with word of truth, wander away from the truth, implanted words, humbly accepting the word of truth

## 교의학

# 코로나19 시대의 창조와 섭리 이해

이신열(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 [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창조와 섭리라는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20년 상반기 이후 기독교적 관점에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많은 논문들이 국내에서 출간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실천적 주제들(예배, 교육, 선교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독교 교리를 코로나19의 관점으로 다루는 글들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본 논문은 창조와 섭리라는 교리에 집중한다. 먼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조직신학자들의 창조에 관한 견해를 섭리와 관련하여 살펴본 후에, 섭리의 경우 기존의 교리적 프레임 대신에 생태와 환경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특히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고찰

을 통해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엄청난 생태학적/환경론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근거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이 어려움으로 탄식할 때,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탄식에 동참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창조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삶과 행위를 자아낼 뿐 아니라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의 도래를 기대하도록 만든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피조세계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상실하고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교리는 다름 이난 창조와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 교리들의 회복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창조, 섭리, 생태학적/환경론적 위기, 기후변화, 새 창조, 종말론

## 1.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발발하여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방역에서 비롯되는 피로감과 활동의 제한,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신속하게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원래 누리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에 대한 확답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는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를 생성한다는 끈질긴 특징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처해왔는가?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상당한 피해를 입고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시대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면 교회 또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위시한 다양한 변화가 교회의 예배를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신학이 추구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모든 신학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해답을 찾고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작년 202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코로나19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는 그 특성상 주로 실천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배(특히 온라인 예배), 교회교육, 선교 등의 주제가 학문적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연구된 주제들이었다.<sup>1</sup> 이와 달리 교리적 주제들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찾아보기 힘든데 강응섭은 어머니 이미지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내놓았다.<sup>2</sup> 또한 손오현과 이정희는 교회의 본질과 변화라는 주제로, 라영환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각각 고찰하는 글을 작성했다.<sup>3</sup> 또한 윤형철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론을 코로나19의 관점에서 고찰했다.<sup>4</sup>

1. 총 234편의 코로나 관련 논문(관련 단행본은 제외함) 가운데 온라인 예배 및 설교에 관한 논문은 35편(14.95%)에 해당된다. 이 논문들이 다른 주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234편 중 47편(20.1%)를 차지한다. 그 외에 교회와 회복 관련 주제가 32편(13.68%), 선교관련 주제가 31편(13.25%)로 주목할 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제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11편), 교회사(6편), 윤리(5편), 교회재정 및 경제(5편), 생태학(4편), 교회의 미래(4편), 교회의 공공성(3편), 인간(2편).

2. 강응섭, “‘어머니-교회’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한국교회”, 『조직신학논총』 63(2021): 7-36.

3. Oh-Hyun Sohn & Jung Hee Lee, “A Theological Study on the Essence and Transformation of Church in the Era of Online Worship: for Coming ‘The New Church Community’”, *Theological Forum* 102 (2020): 125-60; 라영환, “교회의 본질과 사명, 코로나가 묻고 교회가 답하다”, 안명준 외 『교회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105-114.

4. 윤형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됨과 인간다움의 조건에 관한 단상: 포스트휴머니즘 인간론에 대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신학적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먼저 창조에 대한 우리 시대의 논의를 살펴보고 섭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본 후에, 섭리의 현실적 문제를 생태와 환경을 중심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와 섭리 교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창조와 섭리 교리의 회복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우리 시대의 창조론 논의: 섭리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단락에서는 우리 시대(20세기와 21세기)의 대표적 신학자들의 창조론을 살펴보고 섭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러 신학자들이 우리 시대의 창조와 섭리 이해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다음 5명의 신학자들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몰트만, 판넨베르크, 에릭슨, 그루뎀, 그리고 건튼.

### 2.1. 위르겐 몰트만 (Jürgen Moltmann, 1926-)

몰트만은 1971년에 발간된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God in Creation*)』에서 창조론을 생태학과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제공한다.<sup>6</sup> 이 단행본의 서문에서

한 기독교 신학의 답변”, 『조직신학연구』 37 (2021): 26-61.

5. 코로나19를 창조론적으로 고찰한 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조덕영, “코로나19의 창조신학”, 『창조론 오픈포럼』 14/2 (2020): 9-18. 이 논문은 미생물의 분류, 세균과 바이러스의 구분, 세균과 바이러스의 인체내 감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논문의 전체 제목과는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창조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Jürgen Moltmann,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trans.

그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주(the indwelling of God)인 것처럼, 인간은 생태계와의 화해와 공생(symbiosis)을 통해서 지구라는 자연계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sup> ‘생태학적 창조론’의 전개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몰트만은 ‘생태학적 위기(ecological crisis)’라는 제목의 장을 설정했다.<sup>8</sup> 여기에서 이 위기는 지배(dominion)의 위기로 이해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지배 개념이 사실상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sup>9</sup> 이런 맥락에서 이 위기는 자연에 대한 지배의 위기일 뿐 아니라 생태학적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몰트만은 이 생태학적 위기에 신학은 사실상 자연을 과학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역사의 영역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한다.<sup>10</sup> 따라서 신학은 창조와 관련하여 역사를 과대평가하는 오류에서 자연을 해방시키야 하는 임무를 지니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신학이 우주론에서 개인적인 창조 신앙으로 후퇴하는 것을 비판하는 가운데 신학적 창조론에 있어서 생태학적 책임을 발견해야 함을 뜻한다.<sup>11</sup>

몰트만은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이제 지배의 패러다임에서 참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분석적이며 개체화시키고 귀납적인 근대적 사고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1993). 그의 생태학적 창조론에 대한 2차 자료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이신열, “위르겐 몰트만의 창조와 진화를 통해 살펴본 섭리 이해”, 『고신신학』 15 (2013): 287-89.

7. Moltmann, *God in Creation*, xv. 참고로 이 단행본의 독일어 부제는 ‘생태학적 창조론’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이다.

8. Moltmann, *God in Creation*, 20-52.

9. Moltmann, *God in Creation*, 28.

10. Moltmann, *God in Creation*, 31.

11. Moltmann, *God in Creation*, 34.

에서 탈피하여 자연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 참여하는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보았다.<sup>12</sup> 인간이 주체로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데카르트와 형이상학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체 형이상학에 근거한 중앙집권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몰트만은 이런 사고는 자연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상대성의 형이상학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인간의 자연화’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sup>13</sup> 그러나 몰트만에 의해서 수용된 이 개념은 사실상 과정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에서 비롯된 자연신학적이며 과정신학적 개념으로서 그가 생태학적 이론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를 과정신학적으로 통찰한 견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인간의 자연화는 생태학적 이론이 추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이 이론에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이를 소외시키며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의해서 생성되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sup>15</sup>

그렇다면 몰트만은 창조와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는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제 4장 ‘창조주 하나님’에서 과정신학과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의 섭리론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sup>16</sup> 먼저 과정신학의 경우, 하나님의 창조는 부정되지만 그가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개념은 시인된다. 즉 과정신학은 창조가 아니라

12. Moltmann, *God in Creation*, 2-4.

13. Moltmann, *God in Creation*, 49-50.

14. John Cobb, *God and the World* (Eugene, OR: Wipf & Stock, 2000); *Is It too late? A Theology of Ecology* (Deton, TX: Environmental Ethics Books, 1995); Charles Birch et al, *Faith, Science and the Fu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15. Moltmann, *God in Creation*, 50-51.

16. Moltmann, *God in Creation*, 78-79.

유지 또는 질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협된 신학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주어진다. 슐라이어마허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그에게 “창조의 개념은 사실상 유지의 개념으로 환원된다.”<sup>17</sup> 이들과 달리 몰트만은 창조와 섭리(유지)를 모두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만유재신론적 사고의 영향아래 여전히 창조론에 종속되는 섭리론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섭리는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의 개념으로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이는 파괴적 세력에 대항해서 창조를 보존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과거에 피조된 창조의 지속적 지탱을 의미한다.<sup>19</sup> 여기에서 몰트만은 섭리를 이렇게 보존과 유지의 관점에서 고찰하되 이를 진화론적으로 조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종말론적 개념을 추가하여 세계의 완성이라는 미래를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제 섭리에는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혁신의 개념이 추가되는데 여기에 구원론적 개념에 해당되는 수난과 인내,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난의 능력을 포괄된다.<sup>20</sup> 이런 방식으로 몰트만의 신학적 사고는 섭리를 창조론에 종속시키는 방식을 초월하여 구원과 종말을 포함하는 전 포괄적(all-inclusive) 신학 개념으로 전환시키려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2.2.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 1928-2014)

판넨베르크는 3권으로 구성된 그의 주저 (opus magnum) 『조직신학』

17. Friedrich Beisser, *Schleiermachers Lehre vom Gott, dergestellt nach seinen Reden und seiner Glaubenslehr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115. Moltmann, *God in Creation*, 333. 각주 12에서 재인용.

18. 이신열, “위르겐 몰트만의 창조와 진화를 통해 살펴본 섭리 이해”, 282-85.

19. Moltmann, *God in Creation*, 208-209.

20. Moltmann, *God in Creation*, 209-12.

(*Systematic Theology*) 제2권에서 창조론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sup>21</sup> 이는 그가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지닌 신학자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특히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sup>22</sup> 그는 창조를 하나님의 행위로서 규명하면서 먼저 이를 외부로 향한 하나님의 행위로서 논의한다. 이 논의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의 내적 속성이 외부로 향해 전개되는 그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가에 주목한다.<sup>23</sup> 그리고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창조의 성격 또는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이 단락에는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와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에 대한 간략한 논의도 곁들여 지는데 특히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이 악의 존재를 다루는 방식이 무에서의 창조 교리가 지닌 약점을 올바르게 지적했다는 평가가 주어지기도 한다.<sup>24</sup> 계속해서 판넨베르크는 창조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기원에 대해서 고찰한다. 여기에서 그의 강조점은 이 교리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고찰이 단순히 세계의 기원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서 창조론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sup>25</sup>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제공한 후, 판넨베르크는 창조와 섭리라는 주제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의 『조직신학』에는 섭리론이 따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와 보존”, “피조물의 행위에 나타

21.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2,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4), 1-174.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인간론보다 창조론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위엄과 비참함”이라는 제목을 지닌 인간론은 정확하게 100쪽에 걸쳐 논의되었다. 이하 ST로 약칭함.

22. 그의 다음 저작들을 참고할 것. Wolfhart Pannenberg, *Natur und Mensch - und die Zukunft der Schöpf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자연신학』, 테드 피터스 편, 박일준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2000).

23. ST 2:1-9.

24. ST 2:16.

25. ST 2:34. 판넨베르크 창조론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고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이용주, “Wolfhart Pannenberg의 삼위일체 신학적 창조론”, 『조직신학논총』 31 (2011): 351-93.

난 신적 협력”, 그리고 “세계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목적”이라는 소단락으로 구성된 이 단락을 사실상 그의 섭리론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sup>26</sup> 특히 판넨베르크가 섭리론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함에 있어서 주의 깊게 다루었던 부분은 섭리는 창조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런 엄격한 구분은 몇몇 고대 교회 교부들(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가이사라의 바실, 아우구스티누스 등)이 지녔던 창조를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로 이해하는 주장에 의해서 많이 논박되었던 것으로 제시된다.<sup>27</sup> 판넨베르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한 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우주적 과정과 그 역사에서 발생하는 신적 행위의 모든 양상들을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된다.<sup>28</sup>

판넨베르크는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가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이미 지음 받은 피조물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기술되었다는 점을 언급한다.<sup>29</sup> 판넨베르크는 계속적 창조를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로서 보존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faithfulness)에 놓여 있다.<sup>30</sup> 그렇다면 판넨베르크는 보존을 창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에게 보존은 지속적 창조이며 원래 주어진 존재를 넘어서는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sup>31</sup> 이런 맥락에서 보존은 원래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거나 부정하고 새로운 것의 창조를 뜻하는 진화의 개념에 근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점

26. ST 2:35-59.

27. ST 2:37-38.

28. ST 2:41.

29. ST 2:40.

30. ST 2:41-44.

31. ST 2:34.

에 있어서 앞서 언급된 몰트만과 유사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 2.3. 밀라드 에릭슨 (Millard Erickson, 1932-)

에릭슨은 창조와 섭리의 상관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첫째는 창조의 교리가 지닌 함축적 의미를 제시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힌다.<sup>33</sup>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이 이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섭리적 차원이 아울러 언급되는데 이는 생태학적 관심사로 표현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창조의 보존과 행복을 위한 관심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서 에릭슨은 창조와 섭리의 관계를 규명한다.

에릭슨은 섭리를 “하나님께서 그가 존재하게 한 창조를 존재 속에서 보존하시고, 또한 그것을 의도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sup>34</sup> 창조가 우주의 시작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섭리는 이렇게 시작된 우주에 대한 그의 계속되는 관계성을 지칭한다. 창조와 섭리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에릭슨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sup>35</sup> 계속적 창조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앞서 언급된 몰트만을 들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사실상 피조세계의 보존, 특히 진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sup>36</sup> 그러나 에릭슨

32. ST 2:119; 이신열, “칼빈과 판네프르크의 섭리 이해에 나타난 창조의 역할”, 『고신신학』 14 (2012): 441.

33. 밀라드 J.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서론·신론』, 신경수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436-37.

34.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439.

35.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444-46.

36. 이신열, “위르겐 몰트만의 창조와 진화를 통해 살펴본 섭리 이해”, 268, 279-80.

은 이와 달리 계속적 창조를 일종의 새로운 창조(creatio nova)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독일의 또 다른 신학자인 칼 하임(Karl Heim, 1874-1958)의 주장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하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지속적으로 무로 전락한다는 가정 하에 그가 매순간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주장을 내세웠다.<sup>37</sup> 에릭슨은 계속적 창조가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직접적인 사역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부인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sup>38</sup>

### 2.4. 웨인 그루뎀 (Wayne A. Grudem, 1948-)

그루뎀은 미국 복음주의의 대표적 조직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언의 선물(The Gift of Prophecy in 1 Corinthians)』<sup>39</sup>로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신약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 주로 일리노이스주에 위치한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대학원에서 성경신학 및 조직신학교수로 활동했다. 여기에서는 그의 주저인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을 중심으로 그의 창조와 섭리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sup>40</sup>

먼저 그루뎀은 창조론을 크게 다음의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무에서의 창조, 하나님과 구별될 뿐 아니라 그분에게 항상 의존적인 창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37. Karl Heim, *Glaube und Denken* (Hamburg: Furche, 1931), 230.

38.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445.

39. Wayne A. Grudem, *The Gift of Prophecy in 1 Corinthians* (Washington, DC: Univ. of America Press, 1982).

40.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1994).

는 아주 좋았음, 그리고 성경과 현대과학의 발견 사이의 관계.<sup>41</sup> 특히 성경과 현대과학의 관계를 다루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는 세 가지 창조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세속적 이론,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 그리고 창 1:1과 1:2 사이의 연대기적 간격을 주장하는 간격 이론(theory of gap)에 대한 비판이 주어지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유신진화론과 간격이론에 대한 비판이 이 단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sup>42</sup>

그렇다면 그루뎀은 창조와 섭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는 고전적 맥락에서 제시된 보존, 협력, 그리고 통치라는 섭리의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하는 섭리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sup>43</sup> 섭리는 간략하게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ongoing) 관계로 기술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그루뎀이 주장하는 ‘관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는 창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개념을 통해서 섭리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이신론(deism), 범신론(pantheism), 우연(chance), 그리고 결정론(determinism).<sup>44</sup> 이 4가지 개념은 그의 창조론에서 활용된 4가지 개념들(예. 유물론, 범신론, 이원론, 그리고 이신론)<sup>45</sup>과 어느 정도 유사한데 이를 섭리론에도 상당히 일관성있게 (예외는 이원론과 유물론 대신에 우연과 결정론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음) 적용한 것이다. 이는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루뎀이 창조

41. Grudem, *Systematic Theology*, 262-310.

42. Grudem, *Systematic Theology*, 275-309. 그루뎀의 유신진화론 비판에 대한 2차 자료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박찬호, “유신진화론에 대한 웨인 그루뎀의 비판”, 『조직신학연구』 34 (2020): 108-37.

43. Grudem, *Systematic Theology*, 315.

44. Grudem, *Systematic Theology*, 315.

45. Grudem, *Systematic Theology*, 267-71.

와 섭리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적 동질성에 주목했음에 대한 암묵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조와 보존의 교리를 중심으로 한 섭리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 서술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볼 수 있다.

## 2.5. 콜린 건튼(Colin E. Gunton, 1941-2003)

건튼은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에서 기독교교리를 교수한 조직신학자였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과정신학(process theology)과 바르트를 위시한 현대신학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sup>46</sup> 그는 특히 삼위일체론과 창조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에 관한 저작들을 남겼다.<sup>47</sup> 여기에서는 『삼위일체적 창조주』(*The Triune Creator*)에 나타난 그의 창조와 섭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과 세상의 상호작용”이란 제목으로 구성된 제 8 장에서 건튼은 먼저 바르트, 솔라이어마허,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창조와 섭리에 대한 견해들을 간략하게 고찰한다.<sup>48</sup> 그 후에 이 주제에 대한 건튼의 논의는 (약간 의외인 듯 보일지 모르지만) “섭리와 다원주의의 문제”로 집중된다.<sup>49</sup> 이 단락의 논의는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상 섭리론을 대체했다는 테제로 나타난다.<sup>50</sup>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그 뿌리를 뉴턴의 철학,

46. Colin E. Gunton, *Becoming and Being: The Doctrine of God in Charles Hartshorne and Karl Barth* (Oxford: Oxford Univ. Press, 1978).

47. 그의 다양한 저작 가운데 창조론에 관한 대표적 저술로는 *The One, the Three and the Many: God, Creation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The Triune Creator: A Historical and Systematic Study* (Grand Rapids: Eerdmans, 1993)를 들 수 있다.

48. Gunton, *The Triune Creator*, 178-82.

49. Gunton, *The Triune Creator*, 184-90.

50. Gunton, *The Triune Creator*, 186.



즉 뉴턴주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뉴턴주의가 무생명체, 즉 물체의 운동을 다루고 이에 국한된 기계론이었다면, 다윈의 진화론은 뉴턴주의의 수정판으로서 이를 생명체에 적용시킨 경우에 해당된다.<sup>51</sup> 생명체가 무생명체에서 비롯되었다는 다윈의 주장은 뉴턴의 기계론을 전제로 삼았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윈에 의하면 생명체의 창조는 창조주의 전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절대적이며 눈먼 능력에 기인했다. 그렇다면 다윈주의의 진화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와 섭리의 관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부정하는 무신론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헤르만 바빙크가 주장한 것처럼 이신론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무신론자들이 되지 못했다면,<sup>52</sup> 다윈주의자들은 이신론자들이 도착하기를 원했던 무신론의 종착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무신론의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린 진화론은 사실상 창조와 섭리 모두를 부인하는 진정한 무신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건튼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체한 다윈주의의 진화론의 성공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를 표방하면서도 이 사고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한다.<sup>53</sup>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자동적이며 전방향적(forward)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이 원래 의도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51. 헤르만 바빙크는 다윈주의의 진화를 “순전히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법칙의 지배하에 현재의 세계가 존재하던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2』,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640.

52.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50.

53. Gunton, *The Triune Creator*, 188-89.

### 3. 생태와 환경의 관점에서 살펴본 섭리론

#### 3.1. 생태와 섭리

린 화이트(Lynn White)는 “우리 이 위기의 역사적 뿌리”(1967)라는 널리 알려진 논문에서 생태학적 위기의 근원을 유대-기독교 전통의 창조론에서 찾았다.<sup>54</sup>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근본적 문제가 놓여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성경은 반생태적(anti-ecological)이며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일을 용인한 셈이다.

그러나 창 1:26, 28에 언급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이 곧 절대군주의 권한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클라우스 베스트만(Claus Westerman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에 대한 권한은 히브리 왕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국의 복지를 책임지는 권한을(시 72:12-14) 위임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55</sup> 이런 맥락에서 창 2:15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시고 거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표현은 창 1:26, 28의 자연에 대한 지배의 의미를 더욱 자연스럽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 2:15에 언급된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 즉 자

54.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37) (March 10, 1967), 1203-1207. 이 논문은 다음의 글에도 실려 있다. Ian Barbour (ed.), *Western Man and Environmental Ethics: Attitudes Toward Nature and Technology* (Reading, MA: Addison-Wesley, 1973). 이하 이 논문을 인용할 경우 Barbour에서 인용함. 그의 주장에 대한 최근의 반론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박찬호, “기독교 창조론과 생태계 위기: 린 화이트의 주장에 대한 세 가지 반론”, 『조직신학연구』 37 (2021): 62-92.

55. Claus Westermann, *Creation*, trans. John H. Scullion, S.J. (Philadelphia: Fortress, 1974), 52;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1*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87), 33.



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에서 첫 번째 동사 ‘경작하다’는 ‘즐거움과 이로운 일을 위해서 경작하는 행위’로, 두 번째 동사 ‘지키다’는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sup>56</sup>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는 자연을 보존하고 돌보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을 상징하는 명령으로서 섭리라는 교리 가운데 ‘보존’에 상응하는 개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섭리가 명령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인간이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그에게 더욱 의존하도록 함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의 보존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 재난으로부터 피조물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책임과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sup>57</sup> 이 명령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창 6장 이하에 묘사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노아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이 방주에 동물들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은(창 6:19-20; 7:2-3)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였다. 노아가 그의 자력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노아가 자력으로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분명히 그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홍수의 압박함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동물들은 노아에게 자발적으로 나아왔고(창 7:9), 그 결과 그는 대홍수라는 재난에서 온갖 종류의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sup>58</sup>

56. John Black, *The Dominion of Man: The Search for Ecological Responsibility* (Edinburgh: Edinburgh Univ. Press, 1970), 48.

57. Gunton, *The One, the Three and the Many*, 3. 건튼은 이 명령에 나타난 지배의 개념을 책임으로 이해한다.

58. 웬햄은 노아를 ‘대자연보호주의자’(arch-conservationist)로 명명한다. Wenham, *Genesis 1-15*, 33.

이 대홍수는 노아가 살던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존의 섭리를 통해서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셨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아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와 함께 행하셨다. 노아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창 6:22).<sup>59</sup> 여기에서 섭리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협력(concurrence)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소비해야 할 식량을 노아에게 준비하도록 하셨다(창 6:21). 인간과 동물은 식량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 망각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홍수라는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앞으로 방주에서 살아가게 될 생명들의 지속적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을 공급하는 차원까지 포괄한다.

### 3.2. 환경과 섭리: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환경오염과 파괴에 기인한 기후 변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60</sup> 미국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윌리스-웰즈(David Wallace-Wells)는 이상 기후는 이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재앙이

59. 노아의 이 순종의 행위는 웬햄에 의해 영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Wenham, *Genesis 1-15*, 175.

60. 정일웅,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신학과교회』 14 (2020): 175-208. 기후변화에 대한 개요서로는 호주의 환경생물학자 팀 플래너리(Tim Flannery)가 저작한 다음을 참고할 것. 팀 플래너리, 『지구 온난화 이야기: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에 대한 최고의 안내서』, 이충호 옮김 (서울: 지식의 풍경, 2007).

되었다고 선포한다.<sup>61</sup> 그는 21세기 인류사회를 뒤흔들 기후 재난의 양상을 다음의 12가지 시나리오로 설명한다. 1) 살인적인 폭염 2) 빈곤과 굶주림 3) 집어삼키는 바다 4) 치솟는 산불 5) 날씨가 되어버릴 재난들 6) 갈증과 가뭄 7) 사체가 쌓이는 바다 8) 마실 수 없는 공기 9) 질병의 전파 10) 무너지는 경제 11) 기후 분쟁 12) 시스템의 붕괴.<sup>62</sup>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량 학살의 위기를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sup>63</sup> 그는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지구는 멀지 않은 장래인 2050년 이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소위 ‘거주불능 지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같이 21세기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인류의 생존이 머지않은 미래에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대에 해당된다. 지구의 환경은 증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인류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너무나 거대하고 심각해서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문제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사안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며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 모두는 다양한 변명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셈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 재난을 막아줄 것이라는 감상적이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가 모든

61. 데이비드 윌러스-웰즈, 『2050 거주불능 지구: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 김재경 옮김 (서울: 추수밭, 2020). 영국의 기후학자 사이먼 루이스(Simon L. Lewis)와 지구시스템과학자 마크 매슬린(Mark A. Maslin)도 지구 문명을 파괴할 여러 위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후변화를 언급한다. 사이먼 L. 루이스 · 마크 A. 매슬린,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인류세가 빛어낸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남은 선택』, 김아림 옮김 (서울: 세종서적, 2020), 368-406. 윌러스-웰즈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루이스와 매슬린은 이와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62. 윌러스-웰즈, 『2050 거주불능 지구』, 69-212.

63. 윌러스-웰즈, 『2050 거주불능 지구』, 21-24.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sup>64</sup>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기후 문제가 인류의 생존에 얼마나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며 적어도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또 하나의 쟁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65</sup>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의 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종교, 즉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앞서 언급된 린 화이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주장이었다.<sup>66</sup> 여기에서는 보존과 협력이라는 섭리의 두 가지 주제를 활용하여 답변을 찾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은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sup>67</sup> 기후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많은 기후학자들과 환경론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은 고사

64. 윌러스-웰즈, 『2050 거주불능 지구』, 259-78.

65. Wesley Granberg-Michaelson, *Ecology and Life: Accepting Ou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Waco, TX: Word, 1988), 41. 스티븐 보우어-프레디거,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김기철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11), 170에서 재인용.

66.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30: “우리의 문제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치유책 또한 본질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6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18.4;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Grand Rapids: Zondervan, 2011), 362-63; 한상화, “칼빈의 섭리론 해석: 내재적 방식과 초월적 근거”, 『조직신학연구』 25 (2016): 25-30.

하더라도 과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점증해가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sup>68</sup>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든지 인간이 이를 모두 파악할 수 없지만 심각한 기후변화에 직면해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주님의 재림 이전에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한다. 이는 심판자가 세상을 정결케 한 후에(벧후 3:7)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은 새로운 땅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뜻한다(벧후 3:10). 여기에서 '드러나다'를 지칭하는 헬라어단어는 '발견되다'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세상의 정화와 갱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69</sup>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또한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이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킬 만큼 이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sup>70</sup> 이 종말론적 가르침에 기초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시기에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알 수 없는 차원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이 심판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이 보존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환경 보전의 책무에 정진하도록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기후변화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염세적 성격을 지닌 종말론적 조언을 성경적 종말론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68. 윌리스-웰즈, 『2050 거주불능 지구』, 270-72. 윌리스-웰즈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은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모든 기술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기술적 혁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9. 보우어-프레디거,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148-49.

70. Thomas Finger, *Evangelicals, Eschatology, and the Environment*, Scholars Circle Monograph 2 (Wynnwood, PA: Evangelical Environmental Network, 1998), 27.

둘째, 환경과 생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협력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sup>71</sup> 이와 달리 과정신학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하실 수 있는 근거가 세상의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의 특별한 자유를 포기하거나 희생한 대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작용하는 방식(modus operandi)은 그의 자기 제한(self-limitation)의 결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자기 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정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현실적 존재이지만 현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독점하는 무제한적 전능(unqualified omnipotence)의 존재가 아니다.<sup>72</sup>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들을 강제하는 강제적 주체(coercive agency)가 아니라 설득적 주체(persuasive agency)로서 존재한다.<sup>73</sup>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힘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들과 협력적으로 일하신다. 그렇다면 과정신학에서 주장하는 협력의 개념이 전통적 유신론의 협력 개념과 동일한 것인가? 전통적 유신론의 협력 개념은 이 행위의 주체자인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 모두를 전제로 삼는다. 그러나 과정신학의 협력 개념에는 이 신적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을 배제한다.<sup>74</sup> 화이트헤드에게 하나님의 행위는 자신의 자

71. Horton, *The Christian Faith*, 362.

72. Alfred North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Macmillan, 1933), 217.

73. 데이빗 그리핀, 『과정신정론: 하나님, 힘, 그리고 악에 대한 물음』, 이세형 옮김 (서울: 이문출판사, 2007), 354.

74. John B. Cobb Jr., and David Ray Griffin, *Process Theology: An Introductory Expos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60.

유 의지와 결단의 영역 너머에 자리하기 때문이다.<sup>75</sup> 그리핀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사건에 개입하시므로 신적 영향력은 세상의 일상적인 원인적 순서의 자연스러운 일부”<sup>76</sup>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적 협력 또는 이중 작용론(theory of double agency)을 이론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성을 부인하는 양면적 태도를 취한다.<sup>77</sup> 과정신학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또는 이중 작용론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그의 활동 또는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협력 행위가 어떤 신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개념 또한 부정한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 세상에 대한 보존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환경주의적 활동들은 기독교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4. 코로나19와 창조론

코로나19는 예배를 위시한 교회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이를 요구하고 있다. 시간과 물질이 투입된다면 교회의 외적인 삶을 변화시키

75.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215.

76. David Ray Griffin, “Process Theology and the Christian Good News,” in *Searching for an Adequate God: A Dialogue between Process and Free will Theists*, ed. John R. Cobb, Jr. and Clark H. Pinnock (Grand Rapids: Eerdmans, 2000), 13. Horton, *The Christian Faith*, 362에서 재인용.

77. Griffin, “Process Theology and the Christian Good News,” 21. Horton, *The Christian Faith*, 362에서 재인용.

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내적 변화인데 내적변화는 내적 변화는 회복에 해당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며 이로 인해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이나 퇴보를 경험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회복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sup>78</sup> 지금은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이다.<sup>79</sup>

이렇게 고난 중에 놓인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삶의 전선에서 이탈하며 심지어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톰 라이트 (Tom Wright)는 우리가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아픔과 고통, 슬픔과 신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어 구원받게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80</sup>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피조세계의 회복에 해당된다.<sup>81</sup>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의 핵심이기도 하다.<sup>82</sup> 피조세계의 회복과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코로나19

78. 톰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이지혜 옮김 (서울: 비아토르, 2020), 32, 72-73, 97, 123.

79.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82-83, 85, 97-101.

80.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79 이하.

81.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64.

82.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80.

와 관련하여 톰 라이트에 의해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창조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고찰할 때 그 이유가 발견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영생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파괴되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현실적 관점은 구원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창조의 교리로 되돌려 놓는다.

이제 이 단락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고찰하되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펴보고자한다. 이 고찰을 위해서 먼저 롬 8:18-30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톰 라이트는 이 단락을 ‘탄식’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피조세계<sup>83</sup>의 탄식(22절), 교회의 탄식(23절), 그리고 성령의 탄식(26절).<sup>84</sup> 먼저 피조세계의 탄식(22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탄식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sup>85</sup>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이 인류가 자행해왔던 환경훼손과 파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환경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sup>86</sup> 교회의 탄식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교회 교인들의 탄식을 가리키는데 이 탄식은 22절에 언급된 피조세계의 아픔과 탄식에 함께 할 뿐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탄식해야 한다는 의미를

83. 피조세계에 인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 학자들의 견해인데 다음을 참고할 것. 천세중, “로마서 8장 18-25절에 나타난 바울의 ‘창조’이해와 종말론적 구원”, 『장신논단』 45/2 (2013): 93-116.

84.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80-82. 라이트는 ‘탄식’ 대신에 ‘신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최갑중은 이 3가지 탄식을 피조물의 탄식, 신자의 탄식, 그리고 성령의 탄식으로 묘사한다. 최갑중, 『로마서 듣기: 온 세상을 향한 기독교 복음의 진수』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371.

85.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행했던 환경 훼손과 파괴 행위의 구체적 디테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송영목, “종말론과 크리스찬의 환경책무: 베드로후서 3:10-13을 중심으로”, 『개신과 부흥』 27 (2021): 90-91.

86. 고재경 외, “코로나19 위기, 기후 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이슈 & 진단』, 2020.5, 6, 7-8.

지닌다. 여기에 언급된 성령은 이 탄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탄식을 만들고 이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sup>87</sup> 교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나눌 뿐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피조세계의 아픔을 더 절실히 통감하고 피조세계의 회복을 갈망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의 관점에서 본 교회의 임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을 들 수 있는데 26절에 언급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은 무아지경의 일상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로써 방언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해석을 수용하지 아니한다.<sup>88</sup> 이 구절에 언급된 성령의 탄식은 그가 피조세계가 고통으로 아파하고 탄식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sup>89</sup> 결론적으로, 피조세계가 고통 받는 가운데 탄식하며 교회도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진통중인데 이들은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그 날, 즉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sup>90</sup> 계 21:1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피조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때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sup>91</sup>

87. James D. G. Dunn, *Romans 1-8*, Word Biblical Commentary 38A (Dallas, TX: Word Books, 1988), 474.

88. Dunn, *Romans 1-8*, 479; Ernst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trans. and ed.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80), 241-42;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Romans, vol. 1*,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75), 423.

89.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85.

90. 톰 라이트,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1부 1-8장』, 신현기 옮김 (서울: IVP, 2010), 224.

91. 최갑중, 『로마서 듣기』, 373.

## 5. 코로나19와 창조와 섭리 교리의 회복: 워츠바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야기한 팬데믹은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세계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삶의 방식에 나타난 문제의 근원에는 창조를 부정하는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근거한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노르만 워츠바(Norman Wirzba)는 『하나님의 낙원』(*The Paradise of God*)이라는 저서에서 오늘날 인류가 처한 환경 위기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피조물로 경험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이며 이론적인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린 데 있다.”고 진단한다.<sup>92</sup> 워츠바는 오늘날의 문화를 ‘창조를 부정하는 문화’로 정의하면서 이 문화의 5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근대과학과 기술이 사회 구조와 의미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sup>93</sup> 근대과학이 등장한 17세기 과학혁명의 시대는 사실상 하나님을 이신론의 하나님으로 내몰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창조세계에 간섭하거나 섭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변모했다. 이신론의 영향 아래 피조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기계적 세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기 시작했다. “세상을 창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획

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감각이 거의 대부분 상실되었다.”<sup>94</sup> 또한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18세기 이후에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었고 이 합리적 정신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한 결과 발생하게 된 그의 부재의 결과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농경사회에서 도시 사회로의 전환은 피조물을 돌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지구에 대한 공감과 이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약화시켰다.<sup>95</sup> 도시 문화의 특징은 유동성(mobility)에 놓여 있는데 이는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농경 문화와는 달리 자신이 속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런 피상적 지식만을 요구한다. 도시 생활의 핵심적인 딜레마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량과 물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며 우리의 식탁에 매일 공급되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자연에 대한 피상적 지식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 환경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 피조세계에 대한 이런 공감과 지식의 부족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지름길에 해당된다. 셋째,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술적인 잣대(grid)를 통해서만 피조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sup>96</sup> 과학기술의 부정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기술의 주체인 인간에 의해서만 기술의 조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그 영역과 범주가 조작되고 제한된(어떤 경우에는 왜곡된) 자연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sup>97</sup> 있는 그대로의 자연

92. Norman Wirzba, *The Paradise of God: Renewing Religion in an Ecological Age*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3), 61-62.

93. Wirzba, *The Paradise of God*, 65.

94. Wirzba, *The Paradise of God*, 69.

95. Wirzba, *The Paradise of God*, 72.

96. Wirzba, *The Paradise of God*, 78.

97. Wirzba, *The Paradise of God*, 78-79.



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21세기 현대인들의 비극은 자연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다. 넷째, 과학기술문명의 또 다른 부정적 특징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와 피조세계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망각하고 부정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물의 공급원인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아끼고 보존하려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나 인간과 피조세계의 상호성을 강조함에 있어서 생물학적 삶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워츠바의 주장은 분명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sup>98</sup> 인간이 생물학적 삶을 보존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 점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물과 식물을 위시한 생물학적 생명체는 영혼 없이 존재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체에게 도덕적 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피조세계가 온전한 의미를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마지막 요소는 창조주 하나님과 현대인들의 삶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점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로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sup>99</sup> 과학 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대인의 풍요로운 삶은 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감을 은연중에 부추겼다. 서구의 많은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풍요와 안정을 누리며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를 지닌 존재이며 그의 행위로서의 창조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워츠바의 주장이다.

워츠바가 내세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현대인들의 부정적 의식은

98. Wirzba, *The Paradise of God*, 85.

99. Wirzba, *The Paradise of God*, 91.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종말론적 소망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21세기 사회가 비기독교화되어가는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교리는 다름 아닌 창조론과 섭리론이라고 워츠바는 진단한다. 이런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창조와 섭리가 우리 교회의 설교와 신학교육의 현장에서 소외시되는 현실과 창조론이 지닌 내재적 제한과 한계를 들 수 있다. 이 제한과 한계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전능이 행사된 결과로서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을 지닌 선한 창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그 의무를 회피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톰 라이트는 이런 맥락에서 피조세계를 '우리에 갇힌 물소'로 비유하는데 이는 적절한 비유로 볼 수 있다.<sup>100</sup> 피조세계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 인간은 이 탄식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피조세계와 함께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창조와 섭리 교리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앞 단락 (IV)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피조세계와 교회, 그리고 성령의 탄식에 나타난 공통점은 바로 약속된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소망에 놓여 있다. 그런데 종말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세

100. 라이트,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1부 1-8장』, 222.



상이다.<sup>101</sup>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덧없고 무상한 것이 아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의 구속과 회복을 요청하는 종말론이다.

## 6.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와 섭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먼저 20세기의 대표적 조직신학자들 5명(볼트만, 판넨베르크, 에릭슨, 그루뎀, 그리고 건튼)이 창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섭리와 관련지어서 고찰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태학적 창조론을 추구했던 볼트만의 견해가 양자의 견해를 가장 밀접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섭리론을 다루는 단락은 기존의 교리적 프레임 대신에 생태와 환경의 관점을 통해서 접근되었다. 생태학적 위기라는 관점은 이 위기의 근원이 지배와 정복의 모티브를 지닌 기독교의 성경적 가르침에 놓여 있다는 식의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용인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기인한 욕심과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멸망의 위기로 몰아가는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심하게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행하셨다는 사실이다. 환경의 관점에서 섭리에 대한 고찰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인류가 멀지 않은 장래에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101. 보우어-프레디거,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149.

는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서 촉발된 환경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을 보존하시는 섭리의 행위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관점에서 창조론에 대한 고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롬 8:18이하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고통 때문에 함께 탄식한다. 이 탄식 속에서 교회는 고통 속에 놓인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게 된다. 교회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세상의 모든 탄식에 동참하면서 창조의 원래적 의미가 실현될 것을 고대하는 종말론적 영성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창조와 섭리의 교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에 앞서 워츠바가 주장하는 세상이 창조를 부정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피조세계는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조종되고 왜곡되는 상황에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경적 창조와 섭리의 교리를 회복하고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 강응섭, “‘어머니-교회’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한국교회”, 『조직신학논총』 63 (2021): 7-36.
- 고재경 외, “코로나19 위기, 기후 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이슈 & 진단』, 2020.5, 1-25.
- 그리핀, 데이비드, 『과정신정론: 하나님, 힘, 그리고 악에 대한 물음』, 이세형 옮김, 서울: 이문출판사, 2007.

라이트, 톰, 『하나님과 팬데믹: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이 지혜 옮김, 서울: 비아토르, 2020.

\_\_\_\_\_.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1부 1-8장』, 신현기 옮김, 서울: IVP, 2010.

루이스, 사이먼 L. & 마크 A. 매슬린,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인류세가 빚어낸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남은 선택』, 김아림 옮김, 서울: 세종서적, 2020.

바빙크, 헤르만, 『개혁교의학 2』,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박찬호, “유신진화론에 대한 웨인 그루텐의 비판”, 『조직신학연구』 34 (2020): 108-37.

\_\_\_\_\_. “기독교 창조론과 생태계 위기: 린 화이트의 주장에 대한 세 가지 반론”, 『조직신학 연구』 37 (2021): 62-92.

보우만-프레디거, 스티븐,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김기철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11.

송영목, “종말론과 크리스찬의 환경책무: 베드로후서 3:10-13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7 (2021): 65-96.

에릭슨, 밀라드 J.,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서론·신론』, 신경수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 이제스트, 2000.

윤형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됨과 인간다움의 조건에 관한 단상: 포스트휴머니 즘 인간론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답변”, 『조직신학연구』 37 (2021): 26-61.

월러스-웰즈, 데이비드, 『2050 거주불능 지구: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 후재난시나리오』, 김재경 옮김, 서울: 추수밭, 2020.

이신열, “위르겐 몰트만의 창조와 진화를 통해 살펴본 섭리 이해”, 『고신신학』 15 (2013): 257-93.

\_\_\_\_\_. “칼빈과 판넨베르크의 섭리 이해에 나타난 창조의 역할”, 『고신신학』 14 (2012): 423-53.

이용주, “Wolfhart Pannenberg의 삼위일체 신학적 창조론”, 『조직신학논총』 31 (2011): 351-93.

정일웅,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신학과 교회』 14 (2020): 175-208.

조덕영, “코로나19의 창조신학”, 『창조론오픈포럼』 14/2 (2020): 9-18.

천세중, “로마서 8장 18-25절에 나타난 바울의 ‘창조’ 이해와 종말론적 구원”, 『장신논

단』 45/2 (2013): 93-116.

최갑중, 『로마서 듣기: 온 세상을 향한 기독교 복음의 진수』,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판넨베르크, 볼프하르트, 『자연신학』, 테드 피터스 편, 박일준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 구소, 2000.

플래너리, 팀, 『지구 온난화 이야기: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에 대한 최고의 안내서』, 이 충호 옮김, 서울: 지식의 풍경, 2007.

칼빈, 존, 『기독교 강요』.

한상화, “칼빈의 섭리론 해석: 내재적 방식과 초월적 근거”, 『조직신학연구』 25 (2016): 6-42.

Beisser, Friedrich, *Schleiermachers Lehre vom Gott, dergestellt nach seinen Reden und seiner Glaubenslehr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Birch, Charles et al., *Faith, Science and the Fu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Black, John, *The Dominion of Man: The Search for Ecological Responsibility*, Edinburgh: Edinburgh Univ. Press, 1970.

Cobb, John, *God and the World*, Eugene, OR: Wipf & Stock, 2000.

\_\_\_\_\_. & David Ray Griffin, *Process Theology: An Introductory Expos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Romans, vol. 1*,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75.

Dunn, James D. G., *Romans 1-8*, Word Biblical Commentary 38A, Dallas, TX: Word Books, 1988.

Finger Thomas, *Evangelicals, Eschatology, and the Environment*, Scholars Circle Monograph 2, Wynnwood, PA: Evangelical Environmental Network, 1998.

Granberg-Michaelson, Wesley, *Ecology and Life: Accepting Ou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Waco, TX: Word, 1988.

Grudem, Wayne A., *The Gift of Prophecy in 1 Corinthians*, Washington, DC: Univ. of America Press, 1982.

\_\_\_\_\_.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1994.

Gunton, Colin E., *The One, the Three and the Many: God, Creation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_\_\_\_\_. *The Triune Creator: A Historical and Systematic Study* (Grand Rapids: Eerdmans, 1993.

Heim, Karl, *Glaube und Denken*, Hamburg: Furche, 1931.

Horton, Michael,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Grand Rapids: Zondervan, 2011.

Käsemann, Ernst, *Commentary on Romans*, trans. and ed.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80.

Moltmann, Jürgen,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tran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1993.

Pannenberg, Wolfhart, *Systematic Theology*, vol. 2,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4.

\_\_\_\_\_. *Natur und Mensch-und die Zukunft der Schöpf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Sohn, Oh-Hyun & Jung Hee Lee, "A Theological Study on the Essence and Transformation of Church in the Era of Online Worship: for Coming "The New Church Community"", *Theological Forum* 102 (2020): 125-60.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1*,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87.

Westermann, Claus, *Creation*, trans. John H. Scullion, S.J., Philadelphia: Fortress, 1974.

White Jr.,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37) (March 10, 1967): 1203-1207.

Whitehead, Alfred North,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Macmillan, 1933.

Wirzba, Norman, *The Paradise of God: Renewing Religion in an Ecological Age*,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3.

## Abstract

### Understanding the Doctrine of Creation in the Age of COVID-19

Prof. Dr. Samuel Lee  
(Faculty of Theology)

This article proposes to offer a guideline for church member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s of creation and providence in the time of COVID-19. Many articles on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this pandemic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have been published starting from the first half of 2020. Because most of them focus on the practical subjects (e.g. worship, education, and mission etc), it is rather difficult to locate articles helping to clarify Christian doctrine amidst of COVID-19. This article aims to overcome this scholarly gap by concentrating on the doctrines of creation and providenc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starts with a survey of doctrine of creation advocated by 5 renowned systematic theologians of our time with a view to the doctrine of providence. Now attention is given to the second doctrine with a special grid. Unusual approach has been made to this doctrine by utilizing ecological/environmental grid focusing specifically on weather change. By doing so, it has been made clear that God's providence is constantly given to us with an intention of preserving humanity until the last days in the time of severe crisis leading our earth into destruction. COVID-19 has driven many of us into insolvable problems, as a result

people are seriously suffering and groaning from it. In this situation, church needs to develop a perspective to groan together with those who are suffering along with the Holy Spirit. Such an attitude not only results in life and action in compliance with the purpose of creation but enables to anticipate the arrival of the new creation promised by God in eschatological time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absolutely required to have restoration of the doctrine of cre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inevitable that modern man has a strong tendency to deny creation and the existence of God. For this reason, it is now more than required to restore the doctrine of creation and providence.

Key words: COVID-19, creation, providence, ecological/environmental crisis, weather change, new creation, eschatology

교회사

## 1-3세기 초대 기독교 성장: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배정훈(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 [초록]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 더욱 그렇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에서 거의 간과된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이로부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1-3세기 교회의 성장 이야기를 추적할 것이다. 이 시기의 교회의 생성과 발전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 내부로는 이단의 공격을, 외부로는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급속도로 성장하여 급기야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그 비결은 단순하다. 복음과 교회의 본질인 진리와 사랑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안으로는 성경과 교리를 통해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고 외부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히 보여주었다. 예배와 교육과 훈련